



기아차 야구동호회



<김준호 회장>



지난 1979년 창단, 3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아차 광주공장 야구회는 광주직장인 리그에서 최강의 실력을 자랑한다. 67명의 회원들은 주전과 백업요원의 구별이 없이 고른 실력과 기죽같은 분위기로 기아차의 홍보대사 역할과 지역 꿈나무 야구선수 육성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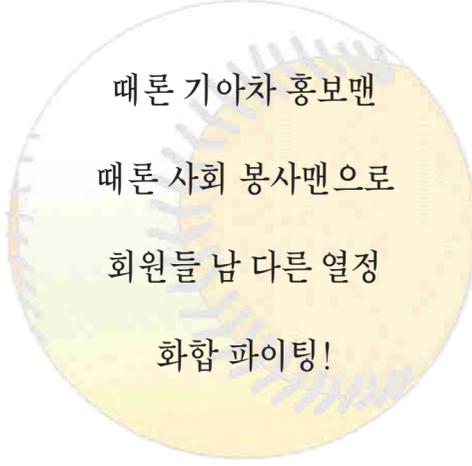
야구 있어 행복한 이들

기아! 기아! 파이팅!

광주직장인리그 최강팀에 빛나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야구회 회원들이 리그 우승을 향한 힘찬 플레이를 펼친다. 현재 7전 전승. 지난해 직장인 리그 준우승에 머문 한 풀이라도 하듯이 올 시즌 우승을 향해 쉬지 않는 연승행진을 벌이고 있다. 욕심은 전승 우승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야구회의 전승 우승은 결코 헛된 꿈이 아니다. 그만큼 뛰어난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야구회는 지난 1979년 창립 3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대회에 본격적으로 출전한 90년 이후 광주지역 직장인리그를 비롯한 각종대회에서 14회 우승 경력을 자랑하는 지역 최강팀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이렇게 최강팀으로 자리매김 한데는 야구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67명의 회원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김준호 회장, 김성근 감독을 비롯한 김대균 부회장, 박오차(포수), 김효훈(유격수), 김진갑(투수), 박기상(투수), 강성현(우익수), 강익식(좌익수), 유진호(외야수), 정태창(3루수) 등 67명의 회원 모두가 주전급이다. 물론 팀의 주포로 홈런상을 수상한 김효훈, 최우수 투수상을 수상한 박기상 등 직장인 리그에 있기에는 아까운 선수들이 있지만 기아차 광주공장 야구회는 라인업과 백업요원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량이 비슷한 점이 강점이다. 여기에 팀타율 2할 9푼대의 막강 타선이 폭발하면 어느팀도 당해 낼 재간이 없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기아차 광주공장의 최강 전력의 비밀은 회원들의 뜨거운 야구열정이다. 이때문에 김 감독은 매 경기 행복한 고민으로 곤혹스럽게 일수



부지런하고 팀워크를 중요시 하는 선수들 기용에 불만이 있을 수 없다. 김 감독의 묘수는 자연스럽게 개인 실력보다는 팀워크를 중시하는 팀 컬러를 갖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거머쥔 최강의 전력을 이루는 말바탕이 됐다. 기아차 광주공장 야구회는 실력만큼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아차를 알리고 홍보하고 있다.이들은 ▲기아 브랜드 알리기 ▲야구 꿈나무 육성 ▲야구 저변확대에 힘쓰고 있다. 광주직장인 리그는 매직리그와 드림리그 양대리그로 16개 팀이 참석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야구회는 리그에서 선수들에게 기아차 사주기 홍보를 통해 기아차 보유율을 기존보다 15% 인상시키며 광주리그 동호인 중 약 40%가 기아차를 타도록 만들었다. 또 회원들은 심심일반으로 모금을 통해 중학교, 고등학교 야구 유망주에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매년 광주공장 사원을 대상으로 소프트볼 대회를 개최해 직원들의 야구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야구에 미친 사나이들이지만 가족 사랑도 빠뜨리지 않는다. '가족과 함께 하는 야구'는 기아차 광주공장 야구회의 또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다. 매주 정기리그전이 열릴 때 가족들과 동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회원들이 지켜야 할 의무다. 20년을 야구회와 보내온 김준호 회장은 올 해부터 야구회를 이끌고 있다. 리그 MVP 출신으로 실력과 덕망을 갖춘 그는 "회원들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최우선으로 올해부터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 기아차 야구회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새로운 포부를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경찰 메가경찰학원
전국 최고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합격비율 1위 교수진
합격이 보장!
합격비율 1위 교수진
합격이 보장!
합격비율 1위 교수진
합격이 보장!

공인중개사
명일반·주말반 국비환급 100%
합격비율 100%
합격비율 100%
합격비율 100%

영화안내
메가박스
콜롬버스 시네마
하미 시네마
씨너스 전대
제일 시네마
메가박스
콜롬버스 시네마
하미 시네마
씨너스 전대
제일 시네마